

## 처음 발견된 『要略』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

김대형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연협동과정, \* 한국한의학연구원

### Abstract

### Medical Historic Inquiry On 『Yoryak』 that Found First

Kim Daehyeng,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e existing Medical Literatures in Korea and China, there is neither the same book name nor same contents of the Medical Book named 『Yoryak(要略)』, but in viewing of the different name as 『GyoinYoryak(教人要略)』, it is considered that written as an unpublished manuscript-book for the purpose of Medical Education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

While the author, Songgyesanin(松溪散人) is even anonymous as yet, it is regarded that he was much familiar with medical science as a secluded ascetic aiming for Taoism-like Life. In 『Yoryak』, the contents of Taoism Literature named as 『OjangYukbudo(五臟六腑圖)』 which was regarded that had been actually initiated since 『Euibangyoochui(醫方類聚)』 is being quoted thereat, also it attempts to combine with 『DonguiBogam(東醫寶鑑)』, the typical Medical Literature of Chosun Dynasty.

With reference to Cause of Disease, since Chin Moo-Taek(陳無擇) asserted 'Theory of Three-Causes(三因說)' in his Book 『Samin Keukilbyungjeung Bangron(三因極一病證方論)』, it effects many influences to the coming generation. However, on coming up to 『Yoryak』, the medical science book of Chosun Dynasty, the 'Theory of Two-Causes(二因說)' which consisted of 'Internal Causes by Seven Emotions' and 'Exterior Causes by Six Harmful Surroundings' is also being asserted.

In accordance with this Theory, it refers to the 'Seven Emotions(七情)' as the fundamental factor to possibly weaken the viscera and entrails, and also regards that the Exterior Harmful Surroundings invade to body when the viscera and entrails are under weakened condition. Therefore, since Cause of Disease naming as 'Cause Theory at Neither Interior Nor Exterior' is not tolerable in such Diagnostic System, it is daringly advocating the 'Two Causes Theory', getting free from the viewpoint of 'Three Causes Theory' that Chin Moo-Taek has ever maintained.

**Key words :** Yoryak, OjangYukbudo, Euibangyoochui Cause of disease, history of korean medicine

## I. 緒 論

『要略』은 아직까지 학계에 알려진 바 없는 미간행 手筆 抄寫本으로 추정되는 의학서로서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의 대상자료로 선정되어 처음 공개되었다. 이 책에는 조선 전기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서 나타난 이후 흔적이 보이지 않는 五臟病理와 道教醫學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의사학적 가치가 큰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이 책은 『東醫寶鑑』 중심의 기존 한국본 의학문헌과는 성격상 판이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관련 연구자들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저자는 이 논문을 통해 서지일반과 형태상의 외관을 비롯하여 『要略』의 著者, 저술시기, 저술목적 및 구성 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要略』에 나타난 도교의학의 영향과 특징, 조선후기의 의학적 경향과는 구별되는 因論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형태서지와 특징

1卷1冊으로 세로와 가로가 24.5×14.5cm, 132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表紙, 目錄, 序文을 갖추고 있는 필사본이다. 表紙의 좌측 상단에는 세로로 『要略 全』(그림.1)이라고 되어 있고 본문의 끝에는 ‘二因舉要方終’(그림.2)으로 되어 있어서 完本임을 알 수 있다. 역대문헌 중에서 동일한 서명의 책은 보이지 않으나 간혹 인용서명을 「要略」이라고 밝힌 것<sup>1)</sup>이 있다. 하지만 모두 『金匱要略』이란 서명을 줄여서 지칭하는 것으로 본 대상문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기존 한국과 중국에서는 『要略』과 동일한 내용이나 서명을 가진 문헌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의 미간행 원고본으로 추정된다.

본문의 필사형식을 살펴보면 한 면에 12행, 1행마다 27字 내외로 되어있으며 내용 중간에는 고치거나 빠진 부분을 삽입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중요 단어나 처방 및 새로운 내용이 시작하는 곳에 옆줄이 우측에 세로로 그어져 있고, 문단이 바뀌거나 새로운 내용이 시작하는 곳에서는 한 칸 위로 올려 쓰여 있어서 다른 내용과 쉽게 구분하거나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3 참고)



그림 1. 『要略』의 겉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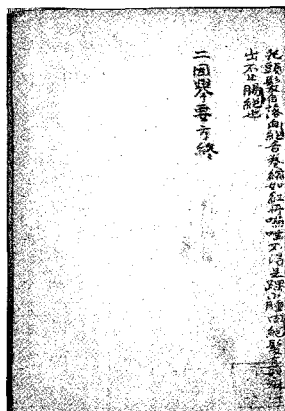


그림 2. 『要略』의 본문 마지막 부분



그림 3. 본문중 心관련부분

1) 徐彦純이 撰하고 劉宗厚가 增補하여 1396년에 간행한 『玉機微義』가 대표적인 예이다.

## 2. 저술시기와 저자에 대하여

### 2.1 저술시기에 대하여

序文의 말미에는 "歲在蒼龍 春三月 下澆 白山 下 松溪散人 題"라는 명문이 적혀있으나 저자와 저작시기 및 저작 장소 등 모두가 명확하지 않다. '歲在蒼龍'에서 '歲'는 歲星, 즉 木星을 가리키는 것으로 목성이 하늘을 일주하는데 12년이 걸려 12干支의 수와 일치하므로 歲星의 소재로써 연대를 표시하던 전통방식의 표기법이다. 예를 들어 1608년에 간행된 『診解痘瘡集要』<sup>2)</sup>에서 허준이 쓴 跋文에 '歲在庚寅之冬'은 干支가 庚寅인 연대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선조18년, 즉 1590년을 지칭한다.

'蒼龍'이 太歲<sup>3)</sup>를 가리키는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歲在'와 비슷한 의미이다. 예를 들어 종종 37년(1542년)에 간행된 『分門癘疫易解方』의 서문에서 '嘉靖二十一年<sup>4)</sup> 蒼龍壬寅<sup>5)</sup>五月下澆'에서와 같은 경우로 '蒼龍壬寅'은 壬寅年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용례의 경우, '太歲壬寅' 혹은 '歲在壬寅'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그러나 '歲在蒼龍'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의 예와 같이 '蒼龍'이 太歲를 의미한다면 '歲在'와 의미상 중복되므로 蒼龍은 干支 혹은 年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蒼龍이 의미하는 干支를 밝히기 위해 유사한 용례를 찾아보면, 저자 미상의 조선의서인 『濟癘篇』<sup>6)</sup>의 「歲在靑蛇 七月上澆草窓道人序」에서 '歲在靑蛇'라고 쓰인

예가 있으나 구체적인 干支가 밝혀져 있지는 않다.

『大漢和辭典』의 「歲在龍蛇條」<sup>7)</sup>에서 龍을 辰으로 蛇를 巳로 풀이한 예가 있고, 蒼과 靑은 오행에 따른 색의 분류에 의하면 木, 즉 天干중 甲乙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유추하면 龍은 地支중 辰이며, 辰은 陽에 속하고 陽支는 陽干과 합하므로 甲乙중 甲이 辰과 배합된다. 따라서 蒼龍은 甲辰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歲在蒼龍"은 甲辰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60년 주기로 순환하는 干支표기법상 역대 어느 해의 甲辰年인지는 더 이상 추적하기 곤란하다. 다만 내용상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에 수록된 오장론과 『東醫寶鑑』의 처방이 대량 수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중기 이후에 저작된 것이 확실하다. 이상의 요소를 감안하여 수리적으로 역산해 볼 때 甲辰年에 해당하는 해는 1664년 그리고 1724, 1784, 1844, 1904, 1964년이 이에 해당한다. 사본의 형태나 저작 방식상 마지막 1964년이 너무 최근인 것을 감안하여 제외한다하더라도 1664년으로부터 1904년까지 물경 240년의 시간차이에 5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일괄하여 고찰하기 어렵다.<sup>8)</sup> '春三月 下澆'은 3월 下旬을 말하며, 구체적인 일시는 적혀 있지 않다.

### 2.2 저자에 대하여

序文에서 저자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단서는 序文의 '白山下'와 '松溪散人'이다. '白山'은 白

2) 『診解痘瘡集要』는 허준이 지은 두창에 관한 언해본 의서로서 내의원에서 간행하였다.

3) 목성을 가리키거나 그 해의 干支를 말한다.

4) 명나라 世宗 1542년

5) 앞의 명 연호로 미루어보아 朝鮮中宗 37년인 1542년임이 확인됨.

6) 제릉편濟癘篇 : 저술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五運六氣에 관한 醫書이다. 필사본 1책(47장)으로 「運氣總論」, 「五行衍論序」, 「十干運太過不及病症」, 「用藥論」, 「紅疹新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해제 참고)

7) 諸橋轍次, 『大漢和辭典』卷九, 大修館書店, 1985修訂版, p.840

8) 『要略』의 내용 중 『東醫寶鑑』에서 출전하지 않는 부분을 다른 문헌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면 좀 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山<sup>9)</sup>, 白頭山, 太白山, 小白山, 威白山 등의 산을 가리키거나 특정 지명<sup>10)</sup>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여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白山’과 덧붙여 ‘下’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명이라기보다는 山名으로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松溪’는 양 쪽에 소나무가 울창한 사이로 흘러내리는 맑은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풍수지리적 특징을 나타내어 사람의 號나 地名에 많이 쓰인다. 조선시대의 경우를 보면 松溪가 號<sup>11)</sup>, 地名<sup>12)</sup>, 건물<sup>13)</sup>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특정인물이나 지명을 지목하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뒤에 散人이라는 인칭명사가 붙어있어 松溪가 雅號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散人’은 ‘벼슬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謙稱이므로 은둔하여 한가롭게 지내며 道家的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을 자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저술시기와 저자에 대하여 조선후기 甲辰年, 늦은 봄인 음력 3월에 白山아래에서 松溪散人이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

### 3. 저술목적과 구성체계

#### 3.1 저술목적

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도 오늘날과 같이 의

학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후학들이 診脈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sup>14)</sup>을 보면서 저자는 일관된 변증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病의 寒熱虛實, 脈의 浮沈遲數, 藥의 補瀉溫涼이라는 세 가지 강령<sup>15)</sup>이 잘 부합해야 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항상 의학의 핵심을 쉽게 깨닫게 하려는 저자의 스승<sup>16)</sup>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이 후학들에 대한 교육과 스승의 영향이 『要略』을 저술하게 된 동기가 된다.

저술 경향은 중요한 것만 추리고 번잡한 내용을 줄여 초학자들이 쉽게 익히도록 요지만 전달 하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서문에서 제시한 ‘敎人要略’<sup>17)</sup>이라는 또 다른 서명을 통해서도 의학도의 교육을 위한 입문서, 혹은 지침서 역할을 목표로 저술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몇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저자가 사승관계에 의해 스승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수받았다는 것과 후일에 著者の 지도를 받는 후학들이 무리를 이뤄 논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학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군의 의학유파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시대 후기 중앙정부의 관청이 아닌 민간에서 의학이 전수되고 사승관계가 형성되어 내려오는 계통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아울

9) 자강도 낭림군, 함남 장진군, 함남 풍산군, 함남 영흥군과 평남 영원군의 경계, 평북 희천군과 강계군의 경계, 황해도 곡산군, 경상도 밀양 등에 백산이 있다.

10) 전북 김제시 白山面, 전북 부안군 白山面 등.

11) 李亨男(1556-1627), 麟坪大君(1622-1658), 金振興(1621-?), 金齊興(1865-1956) 등

12) 전라남도 강진현의 옛 치소의 하나인 송계(松溪), 화순군 이서면 인계3리에 위치하는 송계마을(松溪, 삼계), 조선시대에는 송계(松溪) 또는 속계(涑溪)라고 불렀던 중랑천 등이 있다.

13) 松溪寺(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松溪書院(충청북도 청주시 강서동, 충북 영동군 매곡면 수유리)

14) 『要略』序文, “然 後之學者 不詳其要 每恨其脈下不出病症 未易知解”

15) 『要略』序文 “爲醫者先知綱領 萬病變症不勞而知治 其爲綱領者何 病有萬千不過於寒熱虛實 脈有多變不出於浮沉遲數 藥有多種不外乎補瀉溫涼而已”

16) 『要略』序文 “故余初入學 師常言此者 欲使後人省功易悟 得入眞要”

17) 『要略』序文 “余聞此語 欲使蒙學無有此論 集書藏府病症之要者 及內外二因 病脈之大綱 又註各脈下治症 以成一帙而名之曰敎人要略”

러 脈과 藥과 病을 하나로 아우르는 변증체계를 세우려고 했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교재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2 구성 체계

『要略』은 目錄(그림 4)을 통해서 전체적인 구성체계를 알 수 있다. 목록에서는 <藏府病>, <藏府脈>, <十二經表本><sup>18)</sup>, <傷寒>, <內傷>, <虛勞>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臟腑와 관련된 <藏府病>, <藏府脈>, <十二經表本>과 二因과 관련된 <傷寒>, <內傷>, <虛勞>로 대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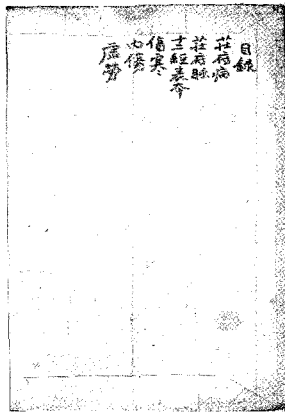


그림 4. 『要略』의 목록

각각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살펴해보도록 한다. <藏府病>은 五臟病으로 구성되어 있다. 五臟病은 이름과는 달리 五臟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개의 臟腑, 즉 五臟과 膽으로 이루어져 있다. 五臟에 대해서는 맥상과 치료법이 모두 기록되어 있으나 膽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藏府脈>은 좀더 세분되어 五臟脈, 藏腑十二經脈, 陰陽六經脈, 陰陽虛實脈, 二十七脈綱領, 外感六淫, 內傷七情, 四時脈, 六氣脈, 四時吉凶脈, 論脈轉變吉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陰陽虛實과 臟腑生剋 및 內外因에 대하여 脈으로 논하고 있다.

<十二經標本>은 본문에서는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으로 되어 있다. 제목이 十二經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을 살펴보면 心, 小腸, 肝, 膽, 腎, 膀胱, 肺, 大腸, 脾, 胃, 命門, 心包絡, 三焦 13개의 臟腑가 언급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13개 臟腑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sup>19)</sup>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本草綱目』의 「臟腑虛實標本用藥式」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유사<sup>20)</sup>한 면이 있으나 『要略』에는 『本草綱目』의 12臟腑체계와는 달리 心包絡에 관련된 내용이 다른 12개의 臟腑와 동일한 형식으로 추가되어 있다. 두 문헌은 장부 배열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要略』에서는 心, 小腸, 肝, 膽, 腎, 膀胱, 肺, 大腸, 脾胃, 命門, 心包, 三焦의 순으로 같은 오행에 속하는 臟腑를 오행의 逆順인 火, 木, 水, 金, 土, 火의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本草綱目』에서는 臟과 腑의 숨을 고려하지 않고 肝, 心, 脾, 肺, 腎, 命門, 三焦, 膽, 胃, 大腸, 小腸, 膀胱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한 『要略』에서는 標病이 없고 本病만 기록되어 있는 命門<sup>21)</sup>을 제외한 十二臟腑를 標本으로 나누었다. 標病과 本病을 다시 脈의 浮沈遲數과 有力無力의 조합에 따라 나누었는데, 각 장부마다 本病은 沈數有力, 沈數無力, 沈遲有力, 沈遲無力的 4가지로 분류하고 標病은 浮數有力, 浮數無力, 浮遲有力, 浮遲無力的 4가지로 분류한 다음, 병증과 처방명에 대하여 『東醫寶鑑』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이 구분하고 의론을 갖추고 있는 것은 『本草綱目』에는 없는 것으로 臟腑중심의 변증체계로 이루어진 『要略』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傷寒>, <內傷>은 본문에서는 「二因舉要方」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虛勞는 부록과 같은 형식으로 끝에 덧붙여져 있다. 傷寒, 內傷, 虛勞의 내용을 보면 『東醫寶鑑』의 「傷寒門」, 「內傷門」,

18) <十二經表本>은 본문에서는 <臟腑標本虛實脈藥摠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表本은 標本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 心을 예로 든다면 “心藏神爲君火 胞絡爲相火 代君行令 主血言汗笑 多氣小血”이라고 하였다.

20) 『本草綱目·臟腑虛實標本用藥式』“心藏神 爲君火 包絡爲相火 代君行令 主血 主言 主汗 主笑”

21) 標病과 本病은 經絡病과 臟腑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命門은 소관 경락이 없으므로 標病이 없다고 본다.

『虛勞門』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고, 처방의 약물구성에 대한 내용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二因學要方」이 독자적인 내용을 구성하기보다는 앞에서 언급되는 二因에 대한 내용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二因에 대한 이론을 심화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要略』의 구성 체계를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목록상의 구성과 실제 원문에서의 구성은 다소 차이가 있다. 목록편명은 필자가 판단한 내용상의 구분을 대비해 놓은 것이다.

目錄(篇名)	중제목	본문의 소제목
要略篇 (五藏六府 病症脈論)	藏府病	五臟病
	藏府脈	五臟脈
		藏腑十二經脈
陰陽六經脈		
陰陽虛實脈		
二十七脈綱領 浮沈遲數		
外感六淫		
內傷七情		
四時脈		
六氣脈		
四時吉凶脈 論脈轉變吉凶		
十二經表本	藏腑標本虛實脈藥摠方	
二因學要方	傷寒	傷寒 外因
	內傷	內傷 內因
	虛勞	虛勞

표 1. 『要略』의 目錄과 내용 구성

#### 4. 학술사적 의의

여기서는 臟腑病의 내용을 중심으로 臟腑의 구성 요소로 肺·心·肝·脾·腎과 膽 여섯 개

의 臟器로만 이루어진 것이 道敎醫學의 영향이라는 것과 『要略』에 인용되어 있는 도교의학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한국의 丹學에서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七情과 六淫을 근간으로 하는 二因論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 4.1 道敎醫學의 영향

조선시대 도교의 흐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종교적인 도교가 아닌 개인의 수양을 위한 수련도교이다.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내세워 타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사상이나 신앙의 대상이 아닌 개인적 수양의 방법으로서 도가적 수련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특히 明나라 洪武帝 朱元璋의 열여섯 번째 아들인 朱權(1378-1448)의 『活人心』<sup>22)</sup>을 손수 초사(『退溪活人心方』)으로 알려져 있음<sup>23)</sup>하고 스스로 도인양생을 즐겨 실행한 李滉의 일화는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퇴계가 초사한 『活人心』은 중국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은 전해지지 않고 『新刊京本活人心法』이라는 이름의 조선판본만이 전해지고 있어서 문헌학적 가치가 높다. 게다가 1585년(선조 18년)에 간행된 『放事撮要』의 ‘八道冊版目錄’에 의하면 조선에는 羅州板, 慶州板, 晉州板 등 여러 판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조선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의서에서는 이보다 더 이른 시기인 1477년 성종 8년에 266권 264책으로 간행된 『醫方類聚』의 경우 卷之二十四, 六十三, 七十, 七十三, 七十六, 八十五, 九十四, 百二十九, 百三十四, 百四十

22) 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석사학위, 2001, p.4

23) 退溪가 『活人心』을 보고 필사한 것이며, 이 자료에 퇴계의 후손들이 ‘活人心方 退溪先生遺墨’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活人心方』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活人心方』은 1973년에 退溪學研究院에서 影印한 것인데, 하권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은석민, 상계서, p.4)

一, 百五十三, 百六十四, 百七十八, 百九十四, 百九十七, 二百一, 二百五 등에 걸쳐서 거의 전문이 인용되어 있다. 이와같이 『活人心』과 같은 수양서적이 저작초기부터 조선으로 입수되어 의학뿐만 아니라 유학자들에게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醫方類聚』의 「養性門」<sup>24)</sup>에서 보이는 外丹術<sup>25)</sup>과 관련된 이론과 내용이 후대로 갈수록 퇴조하고 개인적 수양법으로 변용되어 나갔다는 것은 조선시대 산림처사를 자처하며 단학을 수련했거나 새로운 해석학적 입장을 통해 관심을 표명했던 여러 학자들의 저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金時習의 『梅月堂集』, 鄭謙의 『龍虎秘訣』, 李之菡의 『服氣問答』, 靑霞 權克中の 『參同契註解』, 朴雲(1536~1562)의 『衛生方』, 鄭惟仁의 『頤生錄』, 鄭士偉(1536~1592)의 『二養編』 9권, 李昌庭(1573~1625)의 『壽養叢書類輯』 2권, 崔奎瑞(1650~1735)의 『降氣要訣』, 許筠(1569~1618)의 『閒情錄』,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 徐命膺의 『參同攷』와 『周易參同契詳釋』, 徐有巢(1764~1845)의 『林園經濟志』·「葆養志」, 洪萬宗의 『旬五志』, 鄭東愈(1774~1808)의 『晝永編』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의 대표적 의서인 『醫方類聚』와 『東醫寶鑑』의 도가적 색채를 비교해 살펴보면 『醫方類聚』에서 보이던 外丹에 관련된 내용들이 『東醫寶鑑』에서는 거의 없어지고 內丹이나 導引 위주

의 양생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身形門과 五臟六腑門에 있는 養生法과 臟腑修養法·臟腑導引法의 내용이 그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身形門을 보면 <背有三關>, <搬運服食>, <按摩導引>, <攝養要訣>, <還丹內煉法>, <養性禁忌>, <先賢格言> 등에서 飲食, 居處, 治心 등 일반생활에서의 養生法과 함께 按摩, 導引, 小周天 등의 전문적인 修鍊法을 소개하고 있으나 신비하거나 현학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 개인적인 수양을 증시하는 시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東醫寶鑑』에서 도가수양법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는 곳은 五臟六腑門이다. 이 門의 導引法과 修養法은 6개의 臟腑, 즉 五臟과 膽에만 존재하며, 「臞仙」, 「養性書」, 「養生書」<sup>26)</sup>를 출전 근거로 밝히고 있다.<sup>27)</sup> 그런데 여섯 臟腑로만 이루어진 체계에 대하여 나머지 臟腑, 즉 小腸·胃·大腸·膀胱·三焦의 修鍊法이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저자는 『東醫寶鑑』의 五臟과 膽으로만 이루어진 장부 구성체계에 대한 탐구<sup>28)</sup>를 계속해왔으며, 그 결과 그것이 『醫方類聚』의 五藏門에 산재<sup>29)</sup>되어 있는 『五臟六腑圖』라는 문헌의 일부 내용이라는 것과 저자, 저작시기, 저작 배경 등에 대해 밝힌 바 있다.<sup>30)</sup>

조선에서 『五臟六腑圖』가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조선왕조실록』으로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에서 忠州史庫에 있는 『五臟六腑圖』를 포

24) 養性門은 『醫方類聚』의 卷之一百九十九에서 卷之二百五까지 7卷으로 되어 있다.

25) 『醫方類聚』 養性門의 「寶丹要訣」이 대표적인 문헌이다.

26) 『東醫寶鑑』에서 肝臟導引法, 心臟導引法, 脾臟導引法, 肺臟導引法, 膽腑導引法은 「臞仙」을, 脾臟修養法, 肺臟修養法, 腎臟修養法은 「養性書」를, 肝臟修養法, 心臟修養法은 「養生書」를 출전으로 삼고 있다.

27) 『東醫寶鑑』에서는 출전을 臞仙, 養性書, 養生書라고 밝히고 있어 『醫方類聚』 「五藏門」의 修鍊法과 導引法을 인용하지 않았다.

28)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와 編制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V.16 No.1, 2003, p.39-62

29) 『醫方類聚』 卷之五의 五藏門二, 卷之六의 五藏門三, 卷之十二의 五藏禁忌와 五藏導引

30) 『道藏』 4冊의 「黃庭內景五藏六腑圖」와 6冊의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가 내용과 편제방식을 볼 때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와 가장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고문헌으로 보이며, 『醫方類聚』에는 인용되어 있지 않은 序文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자와 저작배경 및 저작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의 序文에 의하여 당나라 여도사인

함한 서적을 춘추관에 보관하라는 내용이다<sup>31)</sup>. 이는 1412年(壬辰)으로 조선 개국년인 1392년과 20년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五臟六腑圖』는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醫方類聚』에 인용된 후로는 조선의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몇 백 년의 시간을 뛰어 넘어 『要略』이라는 필사고본에서 『五臟六腑圖』의 내용이 醫學과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醫方類聚』는 성종조(1477년)에 초간할 당시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30질(266卷 264冊)밖에 간행되지 못하였고 중간된 일도 없기 때문에<sup>32)</sup> 민간으로 유포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대략 18세기 후반인 정조대 이후에는 의서에 거의 인용되지 않았거나 인용되었더라도 『東醫寶鑑』을 통한 재인용에 불과하여, 이 시기 이후로는 국내에 원본이나 관련 자료가 이미 거의 인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따라서 『要略』의 저자가 『醫方類聚』를 입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에서 충주사고의 『五臟六腑圖』를 가져올 당시 이 책이 민간에 유포되었고 그것이 조선후기까지 산림의 단학파들의 손에 의해 전해져 내려져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要略』의 序文에서도 저자가 스승으로부터 의학을 전수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러한 정황을 뒤받침 해준다.

이러한 것은 현대의 도교의학을 추구하는 의학자들에게는 의학과 도교적인 치료법이 결합된 체계를 시도한 문헌이 이미 조선시대에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 자체만으로도 학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동안 피상적으로만 알려져 왔던 조선의 道脈이 일정한 사승관계를 가지고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4.2 『要略』에 나타난 도교의학의 특징

『要略』의 五臟病에 나타나는 도교의학의 특징을 장부구성, 六府의 개념, 장부배열, 오장병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로 『要略』의 五臟病에는 장부구성이 여섯 개의 臟腑로 이루어져 있으며, 肺, 心, 肝, 脾, 腎, 膽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러한 장부구성은 도교의학의 대표적인 문헌으로 東晉의 魏夫人이 傳했다는 『黃庭經』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장부의 배열순서와 내용은 당나라 女道士인 胡愔의 저작<sup>34)</sup>과 그의 영향을 받은 문헌<sup>35)</sup>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黃庭經』중에서도 「心神章第八」, 「常念章第二十二」에서 장부구성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는데

胡愔이 당나라 大中2년, 즉 848년에 지은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인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승려인 혜운이 당나라에서 유학을 하고 847년에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불교와 도교수련서적을 가져온 목록을 적은 『惠運律師書目錄』안에 『五臟六腑圖』와 동일서명으로 추정되는 『五藏六府圖』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道藏에서 언급한 '대중2년(848)'보다 시기가 앞서므로 도장본의 母本이거나 異本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중2년보다 이른 시기에 다른 이본이 존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당나라에서는 대중2년에 도장본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적이 당나라에서 가져왔다는 점과 그와 동시대에 쓰여진 도장본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와 유사한 서명이라는 점을 볼 때 『五藏六府圖』는 『五臟六腑圖』의 모본이거나 또는 동일한 모본에서 나온 판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저작배경으로는 당나라때 유행했던 外丹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 수행에 앞선 인체에 대한 이해, 이단에 빠지지 것에 대한 경고, 후학들을 위한 수련체계 제시 등을 들 수가 있다.

31) 『太宗實錄 十冊 卷第二十四 12月 7日(己未)』“史官 金尙直에게 명하여 忠州史庫의 서적을 가져다 바치게 하는데, 『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등의 책이었다. ...그 나머지는 春秋館에 내려 간직하게 하였다. (命史官金尙直 取忠州史庫書冊以進小兒巢氏病源候論 大廣益會玉篇 鬼谷子 『五臟六腑圖』...其餘下 春秋館藏之)“

32)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2000, 경희대학사학위논문, p.1

33) 안상우, 상계서, p.1



『黃庭經』의 주석서 중에서 당나라 때 梁丘子<sup>36)</sup>가撰한『修真十書黃庭內景玉經註』<sup>37)</sup>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心神章을 보면 心,肺,肝,腎,脾,膽의 순서로 여섯 臟腑에 대하여 神의 이름과 字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心神은 丹元이고 字는 守靈이다. 肺神은 皓華이고 字는 虛成이다. 肝神은 龍煙이고 字는 含明이다. 腎神은 玄冥이고 字는 育嬰이다. 脾神은 常在이고 字는 魂停이다. 膽神은 龍曜이고 字는 威明이다.”<sup>38)</sup>

六府의 개념에 대하여 常念章에서는 의학의 견해와는 다르게 보고 있다. “六府修治勿令故, 行自翱翔入天路”에 대한 注를 살펴보면 원문의 ‘六府’가 ‘常六府’, 즉 膽,小腸,胃,大腸,膀胱,三焦가 아니라 五臟(肝,心,脾,肺,腎)과 膽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문헌 내에서도 六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sup>39)</sup>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洞神經에서 말한 六府를 살펴보면 肺는 玉堂宮의 尙書府가 되고, 心은 絳宮의 元陽府가 되며, 肝은 淸冷宮의 蘭臺府가 되고, 膽은 紫微

宮의 無極府가 되며, 腎은 出牧宮의 太和府가 되고, 脾는 中黃宮의 太素府가 되어 보통 말하는 六府와는 다르다.’<sup>40)</sup>

胡愔은 『黃庭經』의 영향을 받은 것<sup>41)</sup>에 그치지 않고 의학과 결합을 시도하여 『黃庭內景五藏六府圖』<sup>42)</sup>,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sup>43)</sup>라는 문헌을 지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五藏六府의 개념은 의학에서 언급하는 五藏(五臟)과 六府(六腑)를 지칭하는 것과 다르다. 그는 『黃庭內景五藏六府圖』의 「膽藏圖」에서 五藏의 數에다가 膽을 합한 것을 六府라고 명명한다고 하여 五藏이 六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膽이 水氣를 받아서 坎卦와 同道하기 때문에 五藏과 같이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膽藏圖를 추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五藏의 數에 膽을 加하여 六府라 이름한다. 또한 膽은 역시 水氣를 받아서 坎卦와 同道하나 五臟과 같은 예로 드는 것은 不可하므로 별도로 膽藏圖를 만든다.<sup>44)</sup>

다음으로 肺,心,肝,脾,腎,膽이라는 장부배열의

34) 호음의 의학관련 저작으로는 『胡愔方』二卷, 『補瀉內景方』三卷이 있고 內景관련문헌인 『女子胡愔黃庭內景圖』, 『胡愔黃庭內景圖』, 『黃庭內景五臟六腑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并序』, 『黃帝內景五藏六府圖』, 『黃庭五藏內景圖』와 外景관련문헌인 『黃庭外景圖』등이 있다.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 編制에 대한 고찰, 한국사학회지, 16/1, 2003 참고)

35) 『道藏』의 『上淸黃庭五藏六府真人玉軸經』, 『黃庭遁甲緣身經』, 『四時攝生圖』, 『太上養生胎息氣經』등.

36) ‘白履忠條’에 따르면 “출생연도 미상이고 729년에 사망함. 당나라 陣留浚儀(지금의 河南開封)사람이다. 古大梁城(지금의 開封市 西北)에 근거하였으므로 호를 ‘梁丘子’라고 한다.”고 하였다. (中國道教協會·蘇州道教協會, 『道教大辭典』, 華夏出版社, 1994, p.400)

37) 『道藏』 4冊, p.844-869

38) 心神丹元字守靈 肺神皓華字虛成 肝神龍煙字含明 腎神玄冥字育嬰 脾神常在字魂停 膽神龍曜字威明

39) 이외에도 『道藏』4冊에는 梁丘子가 註한 『修真十書黃庭外經玉經註』에서 六府에 대한 다른 견해가 언급된다. 첫째로는 膽, 胃, 膀胱, 大腸, 小腸, 臍라고 한 것이 있고(『道藏』 4冊,p.872), 둘째로는 大腸, 小腸, 膽, 胃, 膀胱, 命門라고도 하였다. (『道藏』 4冊,p.876)

40) 按洞神經云六府者 謂肺爲玉堂宮爲尙書府 心爲絳宮元陽府 肝爲淸冷宮蘭臺府 膽爲紫微宮無極府 腎爲出牧宮太和府 脾爲中黃宮太素府 異於常六府

41) 『道藏』 4冊의 『黃庭內景五藏六府圖』서문에 의하면 黃庭經의 妙理를 연구하였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42) 『道藏』 4冊

43) 『道藏』 6冊

44) 『道藏』 4冊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 p.842 "又以五藏數加膽 名六腑 且膽亦受水氣 與坎同道 不可例祝之 故別立膽藏圖"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면, 膽을 肝과 같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오장의 뒤에 덧붙여 있는 것은 肝과의 관계보다는 五藏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黃庭內景五藏六府圖』,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 『醫方類聚』의 『五藏六腑圖』에서의 장부 배열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要略』의 五藏病에는 각 장부마다 머물러 있는 神들의 이름과 字, 形狀<sup>45)</sup>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臟腑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도교의학에서는 인체의 五官, 臟腑, 四肢 등에는 신들이 머물고 있다<sup>46)</sup>고 보고, 인체를 宮殿<sup>47)</sup>, 樓閣, 城門, 官職 등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들은 인체에서 들고 나면서 내적으로는 인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내부기능을 강화하여 질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병이 생겼을 때 치유하는 것을 돕는다. 외적으로는 인체를 보호하는 衛氣를 형성시켜 외부의 邪氣나 鬼神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 준다. 심지어는 불노장생이나 신선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신들의 존재를 믿고 그들의 이름이나 字를 부르면서 服飾, 居處, 사용하는 병기 등의 모습을 인체내부와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心神章에서 “晝夜存之自長生” 대한 梁丘子の 주에서도 드러난다.

위에서 언급한 五神의 服色을 생각에 두어 버리지 않는 것이 죽지 않는 방법이다. 『仙經』에서 이르기를 ‘五藏의 氣를 가지고 있으면 五色의 구름으로 변하여 머리위에서 一身을 덮는다. 日은 앞에, 月은 뒤에 두고, 左側에는 청룡을, 右側에는 白虎를, 앞에는 朱雀를, 뒤에는 玄武를 두는 것이 邪氣를 몰아내고 長生하는 방법이다.’라고 하였다.<sup>48)</sup>

『五藏六腑圖』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의학의 生理, 病理, 治法, 處方, 藥物禁忌와 도교수련의 呼吸法, 導引法, 禁忌法등과 결합하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한다. 일례로 『五藏六腑圖』肺藏圖의 내용 중 소제목은 『醫方類聚』에 실린 순서대로 살펴보면 <肺藏圖(그림)>, <相肺藏病法>, <治肺藏病方(排風散)>, <五藏禁忌>, <肺藏修養法>, <治肺藏吐納用咽法>, <肺藏導引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要略』은 『五藏六腑圖』에서 生理, 病理, 診斷의 내용을 받아들인데, 『要略』의 [五藏病]에서 肺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의학의 기본적인 상응인 鼻, 皮毛, 香臭, 顔色, 聲, 辛, 腸, 哭의 변화를 살펴 폐의 병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肺金은 神名이 皓華이고 字는 虛戊이며 白獸와 같은 형상이다. 코의 좌측은 庚이고 右側은 辛이다. 魄, 涕, 氣를 주관한다. 피부가 늘어지고 털이 떨어지는 것은 肺氣가 먼저 끊어진 것이고, 병이 들면 香臭를 알지 못한다. 코가 막히는 것은 風이고, 코가 가려운 것은 肺에 벌레가 있는 것이다. 얼굴색이 마른 나무와 같으면 폐가 건조한 것이고, 顔色이 선명하면 폐에 병이 없

45) 『要略』의 [五藏病] “肺金 神名皓華 字虛戊 形如白獸……心火 神名丹元 字守靈一名五神君子靈臺 形如蓮花……肝木 神名龍烟 字含明 形如青龍……脾土 神名常在 字魂傷 形如風化……腎水 神名玄冥 字育嬰 形如鹿兩頭……膽木 神名龍曜 字威明形如龜蛇”

46) 『東醫寶鑑·神門·人身神名』의 上部八景, 中部八景, 下部八景과 九宮真人, 元首九宮真人을 예로 들 수가 있다. 上部八景에는 髮神 胸神 眼神 鼻神 耳神 口神 舌神 齒神이 있고, 中部八景에는 肺神 心神 肝神 脾神 左腎神 右腎神 膽神 喉神이 있고, 下部八景에는 腎神 大腸神 小腸神 膈神 胃神 膈神 兩脇神 左陽神 右陰腎이 있다고 하였다.

47) 『道藏』33冊의 『洞真太上素靈洞元大有妙經』에서 머리에 있는 상단전의 九宮, 즉 明堂宮, 洞房宮, 丹田宮, 流珠宮, 玉帝宮, 天庭宮, 極眞宮, 玄丹宮, 太皇宮을 예로 들 수가 있다.

48) 『道藏』4冊, P.849 “依上五神服色 思存不捨 不死之道 仙經曰 存五藏之氣 變為五色雲 常在頂上 覆蔭一身 日居于前 月居于後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 即去邪長生之道也”

는 것이다. 몸이 검은 사람은 肺氣가 미약한 것이고, 소리가 많으면 肺氣가 盛한 것이다. 자주 목이 쉬면 폐의 魄이 밖으로 분리된 것이다. 寒暑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肺萎이다. 辛味를 좋아하면 肺氣가 부족하고, 腸鳴은 폐가 응체한 것이고, 肺邪가 自入하면 잘 운다.<sup>49)</sup>

### 4.3 二因論을 주장

『要略』에서는 病이 二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病因을 內因과 外因만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문헌과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內因은 七情 즉 喜·怒·思·悲·恐·憂·驚에 의한 것으로, 外因은 六淫 즉 風·寒·暑·濕·燥·火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각의 원인에 따른 맥상<sup>50)</sup>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역대로 병인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要略』에서 二因이라고 단정해서 주장한 것에 대한 의의를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病因에 대하여 알아보면 『素問·調經論篇』에서는 “무릇 邪氣가 생겨나는 것은 혹은 陰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陽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陽에서 생겨나는 것은 風雨寒暑로부터 말미암고, 陰에서 생겨나는 것은 飲食·居處와 性生活·喜怒에서 말미암는다.”<sup>51)</sup>라고 하여 병의 원인을 陰에서 생기는 것과 陽에서 생기는 것으로 대분류하고 구체적인 병인으로 風雨寒暑, 飲食, 居處, 性生活, 喜怒를 들었다.

張仲景의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에서는 “사람의 질병은 많지만 세 부류를 넘지 않

는다. 첫째는 經絡이 邪氣를 感受하고 장부로 침입하여 내부에서 발병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邪氣가 四肢九竅로 들어가 血脈으로 서로 전변되어 막혀 통하지 않는 것으로 외부의 피부로부터 침입한 것이고, 셋째는 房事·創傷·蟲獸에 의해 손상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자세히 살피면 질병의 연유를 모두 알 수 있다.”<sup>52)</sup>고 하여 七情보다는 주로 인체의부로부터 침입하여 들어가는 병의 원인을 위주로 보고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양생을 잘 할 것을 선결요건으로 삼고 있다.

宋代의 陳無擇에 이르러서는 그의 저서 『三因極一病症方論』에서 病因을 內因, 外因, 不內外因으로 나누어 三因論을 주장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外因은 寒暑燥濕風熱의 六淫에 의한 것으로, 內因은 喜怒憂思悲恐驚의 七情에 의한 것으로, 不內外因은 飲食飢飽, 叫呼傷氣, 盡神度量, 疲極筋力, 陰陽違逆, 乃至虎狼毒虫, 金瘡跌折, 疰忤附着, 畏壓溺<sup>53)</sup>으로 파악하고 있다. 內因은 내적으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말하는데, 즉 五臟를 虛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한다. 五臟은 神을 간직하고, 이 神의 변화에 의하여 나타나는 七情이 內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素問의 調經論에서 언급한 ‘飲食居處, 陰陽喜怒’는 喜怒는 內因에 속하고 나머지는 不內外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要略』의 二因論은 陳無擇의 三因論과 비교해 볼 때 不內外因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것 같지만

49) 『要略』「五臟病」, “肺金 神名皓華字虛戊 形如白獸 鼻左庚右辛 魄涕氣 皮緩毛落肺蒸先絕 病則不知香臭 鼻塞風 鼻痒者肺有虫 容色枯者肺乾 顏色鮮者肺無病 体利黑黯者肺蒸微 多聲音者肺蒸盛 多聲嘶者肺中魄難於外也 不耐寒暑者肺萎 好食辛味者肺蒸不足 腸鳴者肺壅 肺邪自入則好哭”

50) 七情에 따른 맥을 구분하였는데, 喜는 散, 怒는 激, 思는 結, 悲는 緊, 恐은 沈, 憂는 滯, 驚은 動이라 하였다. 六淫에 따른 맥을 구분하였는데, 風은 浮, 寒은 緊, 暑는 虛, 濕은 細, 燥는 數, 火는 大라고 하였다.

51) 夫邪之生也, 或生於陰, 或生於陽. 其生於陽者, 得之風雨寒暑 其生於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喜怒

52) 千般疾難, 不越三條 一者, 經絡受邪, 入臟腑, 爲內所因也 二者, 四肢九竅, 血脈相傳, 壅塞不通, 爲外皮膚所中也 三者, 房室, 金刃, 蟲獸所傷, 以此詳之, 病由都盡

53) 陳無擇, 『三因極一病症方論』 欽定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11, 대성출판사 영인, 1995, p. 743-171

큰 관점의 차이가 있다. 二因이라는 말은 陳無擇이 병인의 한 부류라고 주장하는 不內外因을 病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즉 『素問』의 調經論에서 언급하는 ‘飲食居處, 陰陽喜怒’에 대하여 五臟을 虛하게 할 수 있는 ‘喜怒’만을 病因으로 보고 ‘飲食居處, 陰陽’은 五臟이 虛한 상태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부차적인 인자이므로 病因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버리를 당기면 그물 전체가 끌려오듯이 七情과 六淫만이 질병을 진단하는 핵심으로 본다.

또한 七情은 心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君主之官인 心을 잘 다스려 七情을 動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五臟을 견고하게 하고 외부의 邪氣(六淫)이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므로 六淫보다 七情이 좀 더 근본적인 병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丹溪脈訣指掌』에서 “옛날 사람들은 臟氣를 조절하여 淫邪가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지금 사람들은 七情이 臟氣를 손상시키므로 六淫이 臟氣의 虛한 곳을 침범하여 상하게 한다”<sup>54)</sup> 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內因과 外因의 진단에 있어서 『要略』에서는 內傷七情은 臟腑脈位診斷과 氣口脈診斷을 같이 시행하고, 外感六淫은 臟腑脈位診斷과 人迎脈診斷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다. 肝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肝이 風에 상하면 左關과 人迎脈이 弦(本脈) 弱(風)하면서 急病한다. 증상은 自汗惡風하며 小腹이 急痛한다.”<sup>55)</sup>

同氣相求에 의하여 六淫 중 風은 肝을 잘 상하게 하므로 肝으로 風邪가 들어간다. 肝의 診脈位인 左關과 外感을 진단하는 人迎脈에서 모두

肝의 本脈인 弦脈과 風邪에 상한 弱脈이 나타나 急病하면 風邪에 상한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법은 이미 『丹溪脈訣指掌』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내용을 비교해보면 風邪를 받는 주체를 『丹溪脈訣指掌』<sup>56)</sup>에서는 足厥陰이라는 경락으로 보는 것과 달리 『要略』에서는 肝으로 보고 있어 臟腑중심체계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이상 고찰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要略』은 1冊으로 된 필사고본으로 조선후기 甲辰年, 늦은 봄인 음력 三月에 松溪散인이 지었다고 밝혀져 있을 뿐이다. 기존 한국과 중국에서는 동일한 서명과 내용을 가진 의학 문헌이 없고, 『教人要略』이라는 異名으로 볼 때 조선후기에 의학교육을 목적으로 쓰인 미간행원고본으로 볼 수 있다.
2.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으나 도가적인 삶을 지향하며 은둔했던 수행자로 의학에 정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문의 내용에 의하면 그의 의학은 개인적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스승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또한 그의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師承관계가 형성되었던 도가계열의 의학유파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要略』의 五臟病에는 『醫方類聚』이후로 失傳되었다고 여겨졌던 『五臟六腑圖』라는 도가문헌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五臟六腑圖』를 중심으로 수련하는 단학파가 있었고, 조선초기이전부터 道脈이 이어져 내려

54) 『脈訣指掌』 「辨六淫外傷六經受病于人迎說」, “上古之人 調臟氣而 淫邪不入 今之人 七情就臟氣而 六淫乘虛而傷之”

55) 『要略』 「外感六淫」, “肝傷風 左關與人迎脈弦本脈弱風而急病 其病自汗惡風 小腹急痛”

56) 『金元四大家 醫學全書』 上, p.803 “足厥陰傷風脈 人迎與左關 皆弦弱而急 弦本肝脈 弱緩風脈也 急者病變也 其症自汗惡風 而倦小腹急痛”

왔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五臟六腑圖』의 내용이 후대로 내려와 조선의 대표적인 의서인 『東醫寶鑑』과 결합을 통하여 새롭게 쓰여진 것은 현대에서 道敎醫學을 추구하는 의학자들에게 학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病因에 대하여 陳無擇은 그의 저서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 三因論을 주장하여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조선의 의서인 『要略』에 이르러서 內因七情과 外因六淫으로 구성된 二因論을 주장하면서, 七情과 六淫만이 질병을 진단하는 핵심으로 보아 不內外因은 病因에서 제외된다. 臟腑를 虛하게 할 수 있는 七情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臟腑가 虛한 상태에서 外邪가 침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증의 체계에는 不內

外因이라는 病因은 용납되지 않으므로, 陳無擇의 三因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二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 診脈方式에 있어서 『要略』과 『丹溪脈訣指掌』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상당한 유사점을 있는 것으로 보아 『丹溪脈訣指掌』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要略』에서는 진일보하여 장부중심의 변증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要略』의 臟腑標本虛實脈藥總方과 『本草綱目』의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어진다면 중국의학과 구별되는 조선 후기 도가계열의 의학적인 특징을 한층 더 드러날 것으로 본다.

검색어 : 要略, 五臟六腑圖, 醫方類聚, 道敎醫學

## 참고 문헌

### 원전과 사서류

김예몽 等撰, 『醫方類聚』,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人民衛生出版社, 1981.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許浚, 『診解痘瘡集要』(韓國醫學大系 권37) 驪江出版社, 1994.

金安國 等編, 『分門瘟疫易解方』(韓國醫學大系 권38)

저자 미상, 『濟癘篇』(韓國醫學大系 권43)

李時珍, 『本草綱目』, 人民衛生出版社, 1982.

陳無擇, 『三因極一病症方論』, 欽定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11, 대성출판사, 1995.

胡愔, 『黃庭內景五藏六腑圖』(道藏 4冊), 『黃庭內景五藏六腑補瀉圖』(道藏 6冊). 文物出版社, 上海書店, 天津古籍出版社.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大修館書店, 昭和六十年修訂版. 中國道敎協會·蘇州道敎協會, 『道敎大辭典』, 華夏出版社, 1994.

### 연구서와 논문류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원, 2000.

은석민, 『活人心』의 의학사상 연구, 경희대학원, 2001.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와 編制에 대한 고찰, 한국의학사학회지, 16/1, 2003.

박찬국 編譯, 『病因病機學』, 傳統醫學研究所, 1992.

『金元四大家醫學全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